손해 실패 망함의 때 탈출막차

(예레미야 24:1~10)

1.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2.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3.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오늘 말씀 중심으로 <손해 실패 망함의 때 탈출막차>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손해 실패 망함의 때 탈출막차'
오래 전에 어느 장로님과 했던 대화입니다. 분당이 개발되던 때였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에 사시던 장로님이 집값의 차익을 계산하고 분당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분당으로 오시고 나니 이번에는 수지가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다시 차익을 계산해보니 엄청나서 수지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새로 짓는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차익까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강남의 집값 상승이 주춤할 줄 알았는데 천정부지로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파트 하나만 가져도 재벌소리를 듣게 생겼습니다. 강남은 강남대로 올라서 배가 아픈데, 수지로 이사하고 나니 분당의 집값도 약 올리듯 오르기 시작합니다.
장로님은 처음에 강남 아파트를 파신 것을 후회하며 푸념을 하시는데, 사실 이분은 부동산 시세차익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사업체의 사장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그 부동산이 그렇게 아까우셨는지 골탕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저는 이 말에 오히려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사업을 오랫동안 하신 분이 어떻게 어리석게도 앞을 내다보지 못했습니까? 지금 강남 집을 가지고 계셨으면 저한테 맛있는 것을 사주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약 올리는 말씀을 드렸더니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허탈하게 웃으셨습니다.

두 번이나 집을 판 사건을 놓고 영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보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장로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사한 것에 대해 안타까워하고 계실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것 같았으면 애초에 이사가 성사되지 않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장로님과 같은 마음으로 집값을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강남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것을 아시면서도 장로님의 선택을 내버려두셨을까요? 장로님의 믿음과 모든 상황을 고려하셨을 때에 내버려두는 것이 더 유익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장로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장로님께 궁극적으로 유익이 되는 길을 모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사실입니다.

장로님은 놓쳐버린 돈을 아까워하는 동안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사실입니다. 마음에서 돈을 아까워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버는 것도 멈추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합치면 하나의 결론이 나옵니다. 강남 아파트를 놓치게 된 돈은 장로님에게는 해가 될 돈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장로님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에 악한 행위를 선으로 바꾸셨던 것과 같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한 순간도 멈춤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본다면 장로님은 아무 손해를 입지 않은 것입니다.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비록 잘못된 마음으로 저지른 일이지만 삶의 전체 과정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종국적으로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뜻뿐입니다. 이것을 알았다면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뿐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돈을 좋아해서 돈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제는 돈을 아까워했듯이 하나님을 아까워하고 돈을 벌기 위해 두 번이나 이사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벌기 위한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손해나 실패나 망함은 한 순간에 갑자기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과정 끝에 생겨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손해나 실패나 망함을 피하는 막차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이 막차를 올라탈 수 있으면 손해나 실패나 망함으로부터 탈출 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주어지고 망하거나 실패하게 되면 마음은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세상이 깜깜하게 느껴지고 상실감과 패배감과 두려움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억울함에 분노가 생겨나기까지 합니다. 마음뿐만이 아니라 실제상황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집을 잃고 오갈 데가 없어지기도 하고 끼니를 연명하기 힘든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저도 다 경험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나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등을 돌립니다. 사회적으로 퇴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둠의 그림자로부터 탈출 할 수 있는 막차가 있습니다. 이 막차를 탈수만 있으면 손해와 실패와 망함은 열 번의 흑자와 성공과 번영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

런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쁘고, 이 말씀이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기에 신이 납니다.

오늘 예언은 2장부터 25장까지 이어지는 열두 편의 설교 중에서 열한 번째의 설교입니다.
남 유다의 멸망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드기야 왕 말기에 주어지는 예언으로 여겨집니다.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이미 백성들은 두 차례에 걸쳐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BC.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침공하여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첫 번째 포로로 잡혀 갔고, BC.597년에 여호야긴 왕의 반 바벨론 정책을 질책한 결과로 두 번째 침공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도망친 사람들과 저항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혹은 애굽 등으로 이민을 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침공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선민은 잡혀간 사람과 잡혀가지 않은 사람의 두 부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남은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보편적인 가치 판단이 생겼습니다. 포로로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들을 결정적인 저주를 피한 다행스러운 자로 여겼습니다. 한편 포로로 잡혀 간 자들에 대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의 자리로 떨어진 불행한 자들로 여겼던 것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저항하거나 피했던 자들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신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의 비유를 통해 이러한 판단을 뒤엎으십니다. 백성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뜻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복된 자들이고, 유다 땅에 남아서 포로 됨을 피한 자들이야말로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5~7절을 보면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신 것과 같습니다. 반면 8~10절까지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자들이 유다 땅에서 흐트러뜨림을 당하고 멸절 당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두 광주리에 담긴 무화과 열매의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남 유다 선민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깨우쳐 주시려 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난 바벨론의 침공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록 멸망이 예언되었을지라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입니다. 지금 내가 손해를 입고 실패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는 것이 됩니다. 손해나 실패나 망함을 절대 안 된다며 외치는 것이야말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는 정말로 망하게 됩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옥문 바로 앞까지 오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을 생각해보니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지옥에 가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지옥으로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지옥에 가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지 않고 산 결과입니다. 물론 이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지옥에 들어가기 직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향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입고 실패하고 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고,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다면 이것이 바로 막차를 올라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친 것처럼 선민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오히려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배신자는 오랫동안 기회를 노리다가 자본금까지 털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전 재산을 잃고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전체 과정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 리는 없습니다. 이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막차는 열심히 배신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가족들을 친척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막차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뜻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가상현실이 아닌 사실에 대한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이 아닌 허황된 것을 믿거나 세뇌당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사실입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심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동업자가 나를 배신한 것조차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억울해하신다면 애초에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면서도 이런 상황을 주신 이유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업을 한답시고 하나님보다 사업을 사랑했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번제로 바쳤던 것처럼, 사업보다도 하나님을 좋아해본 적이 없었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슨 소리냐며 대항했다면 선민의 역사는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한다면 완전히 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주어질만해서 주어졌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실패가 합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탈출하는 막차에 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게 된 자를 더는 괴롭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플러스 방향은 부흥이고 번영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방향은 손해나 실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취해야 하는 것은 껍데기 속에 있는 알맹이입니다.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들이 덕아웃에서 타순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항상 뭘 씹고 있습니다. 씹는담배를 질겅거리고 풍선껌을 씹거나 해바라기 씨를 까먹습니다. 심지어 수비를 보는 선수들조차 주머니에 해바라기 씨를 넣어뒀다가 먹는다고 합니다. 얼핏 긴장감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광경입니다만 오히려 경기가 치열하기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치열할수록 해야 할 일은 주어진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이라는 껍질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합니다. 삶이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이든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대 값을 씌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돈이 벌려도 돈을 벌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돈이 안 벌려도 그 상황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돈을 안 벌리게 하신 뜻이 무엇일지에 대해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먹는 것에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플러스적 상황을 만들기 위해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적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절대 값을 씌워서 하나님의 뜻을 먹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향하는 마음을 죽여야 합니다. 플러스 상황에서는 벌고 얻고 성취한 것에 대해 좋아하는 마음을 죽여야 하고, 마이너스 상황에서 잃고 실패했을 때에 아까워하는 마음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을 발동하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은 움직여갈 수 없습니다. 잘 될 때에도 위험하고 안 될 때에도 위험합니다. 이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오는 막차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나마 플러스 상황은 마음이 괴롭지는 않지만 마이너스 상황이 주어지면 몸도 마음도 다 힘듭니다.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 편이 낫겠지만 어쩔 수 없이 주어졌다면 꼭 막차를 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것을 잃어버리는 아까워하는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하나님 뜻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삶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지 않는 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는 없

습니다. 손해나 실패 혹은 망함으로 인해 잃어버릴 것들을 아까워하는 동안에는 절대 하나님을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뿐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나라를 잃어버리는데도 아까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나라 잃는 아까움으로 하나님 잃는 것을 아까워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돈을 아까워하고 목숨을 아까워하고 나라를 아까워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버려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못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한다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려면 세상에서 아까워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 내가 아까워하고 있는 것을 없애고 있는 중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아까워하는 마음을 죽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막차는 올라탈 수 없습니다. 내게 실패와 손해를 주시고 멸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에 올라탈 수 없다면, 진짜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막차를 놓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황을 호전시키고 반전시키기 위한 요령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올라탈 수 없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손해를 봄으로써 잃게 되는 세상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올라타게 될 때에 비로소 손해의 억울함으로부터, 실패의 그늘로부터, 멸망의 자괴감으로부터 탈출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플러스 상황이든 마이너스 상황이든 이것이 껍질임을 깨닫게 하시고, 알맹이인 하나님의 뜻을 아까워하고 놓치지 않고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많이 버는 하나님의 재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